

평화와 치유의 울림...여순사건 76주기 문화행사 '다채'

내일 추모전야제, 이달말까지 곳곳서 포럼·전시회·예술제 여수시 오페라 '침묵'·순천시 창작음악극 '그해 10월' 공연

여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76주기를 맞아 뜻깊은 문화행사가 여수와 순천에서 열린다. 양 시는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모 전야제·포럼·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대표적인 기념행사로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부제: 바다에 핀 동백꽃)'을 오는 18·19일(오후 7시30분) 이틀간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시는 이번 공연을 위해 출연진을 공모해 선발했으며, 관람은 선착순으로 무료입장이다.

오페라는 결혼을 약속한 '침묵'을 여순사건으로 잃은 '짐레'가 한을 품고 살아온 지난 70여년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용서와 화해를 통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내용이 담겼다. 오페라 감독은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강해수 감독이 맡았다. 140여명의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영동1번지와 남문터 광장 등에서 '평화와 치유의 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주간 인문학 행사를 개최한다. 18일 영동1번지 공연장에서 열린 예정인 추모

전야제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평화염원 순천시 민합창단'의 여순창작 음악극 '그해 10월'이 공연된다. 음악극에 앞서 여순사건 마을교육 과정의 개발과 실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여순사건 교육 포럼이 열린다. 또 '여순사건, 미래세대의 시선'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시회가 18일부터 24일까지 창작예술촌 1호와 남문터 광장 회랑에서 진행된다. 창작예술촌에선 청소년들의 시화작품과 순천대 사회봉사단 '이실직고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남문터광장에서는 여순역사만화와 그림책 전시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순천청소년예술제'가 31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시화전·악기 연주·역사연극 등이 펼쳐진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마음 충전 이동카페' 성료

자살예방의 날 맞아 시행 학생 450여명 참여 호응

구례군의 중·고교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 충전 이동카페' 행사가 학생들의 호응 속에 열렸다. 구례군이 주최한 '마음 충전 이동카페'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10일)과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맞아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11일 이틀간 관내 소재한 전남자연과학고(11일)·산동중·구례여중(10일) 3개교에서 각각 개최됐다. 특히 푸드트럭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직원 총 4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마음 충전 이동카페 푸드트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편견 해소 O/X 퀴즈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살예방퀴즈를 맞히면 푸드트럭에 준비된 음료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정신건강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며 행사가 재미있게 진행되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조현병·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재활(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 오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를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읍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쌀' 차곡차곡



지난 14일 전개된 보성읍 보성읍 행정복지센터의 '사랑의 쌀 나누미(米) 캠페인'에 농가와 각종 단체에서 기증한 쌀이 쌓이고 있다. 이날 기증된 쌀 45포대를 포함해 연말까지 시행될 캠페인을 통해 모은 쌀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성군 제공>

곡성 성륜사 19일 가을밤 산사음악회

'인연' 주제...다양한 프로그램 곡성군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성륜사가 오는 19일(오후 6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인연'을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 '시니어 드림팀'의 드림팀 연주, 육과 '힐

링 댄스팀'의 춤 공연, 남해 법흥사 정안스님의 색소폰 연주 음악회의 초반 분위기를 이끈다. 본 공연에서는 명창 이용선 선생의 '배 띄워라' 등 고전 음악을, 소프라노 이경미와 바리톤 손승범이 '그리운 금강산'과 '축배의 노래'를 각각 선사한다. 80년대 가요계의 아이콘 최성수와 김유화·진술 등 대중가수들도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성륜사 주지 대주스님과 용문거사의 '인연' 주제 특별 토크도 마련돼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이 외에도 국가유산 경내 탐방과 가을밤 연등 전시, 저녁 간식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사의 정취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성륜사 대주스님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따뜻한 소통의 장인 이번 음악회를 통해 서로의 인연을 나누고 행복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륜사는 육과의 설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아산 조방원 선생과 청화 대종사의 인연으로 10만평의 땅을 시주 받으면서 중창 불사한 곡성군의 전통사찰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광양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22일 광양국민체육센터서 18개 기업 참여...현장면접 진행

광양시가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첫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광양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과 기업간의 만남의 장 '제1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꿈을 꾸자! 내일을 잡아!"라는 슬로건으로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을 통해 장애인 40여명이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18개 기업이 현장 면접에 나서 콘텐츠 디자이너·운전자·생산직·사무보조·체육선수·예술가 등 다양한 직군의 인력을 모집한다. 참여업체 및 구인 조건은 고용 24(www.work24.go.kr) 누리집(홈페이지) 채용정보(일자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 부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이력서와 복지카드를 지참해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외 취업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직 종합상담 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장장애인재능기부센터(797-2959)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취업준비반 ▲직업체험관 ▲홍보전시관 등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들이 운영된다. /광양=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광양시, 고액 체납자 차량 견인·공매 조치

3주간 지방세 2억여원 징수 광양시가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의 강력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는 '짚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광양시가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

속을 펼친 결과, 차량 124대의 번호판 영치·차량 4대 강제 견인 등으로 지방세 1억2200만원과 차량 과태료 25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9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공매 실적이 있는 641대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려 152명의 체납자로부터 2억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인도한 차량 24대를 공매 의뢰했다. 광양시는 향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465대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및 차량 소재지에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4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동부권 정책회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섬박람회 도비 추가지원을 건의했다.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추가예산 확보 청신호

147억 요청 전남도 '긍정 검토' 오는 2026년 여수에서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4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동부권 정책회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섬박람회의 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에 김 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비(248억원)로는 매우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추가 위탁사업비 128억원을 포함해 도비 총 14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섬박람회가 반드시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도비 추가 지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예산지원의 뜻을 보였다. 이로써 여수시는 그간 예산 부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됐다. 당초 섬박람회의 국가행사 승인 때의 예산은 총 248억원(국비 64억원, 지방비 64억원, 수익사업 12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행사 기간 연장과 물가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추가 예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에 지원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정 시장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부와 정치계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남도의 적극 지원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여수시도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여수 돌산읍 진도지구와 금오도·개도·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감정노동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감정노동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아로마 족욕·스트레스 지수 측정 고흥군이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은 오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과역면 '봄햇살 케어팜'에서 자연을 감상하며 차 마시기와 아로마 족욕을 통한 원에 치유와 뇌파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권 '봄햇살 케어팜' 대표는 "고령 인구가 많은 고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농촌자원을 가진 고흥군의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kwangju.co.kr